태풍 '찬투' 간접 영향권… '물폭탄' 우려

지역따라 최고 500㎜ 폭우
육상에 호우·강풍주의보
17일 오전 제주 가장 근접

강풍 속 사진작가 13일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태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귀포시 안덕면 해안가에서 한 사진가가 밀려오는 파도를 포착하기 위해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다. 강희만기자

제주가 북상중인 제14호 태풍 '찬투'의 간접 영향으로 최고 500㎜의 폭우가 쏟아지는 등 영향권에 접어들고 있다.

13일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찬투'는 이날 오후 3시 현재 중국 상하이 동남동쪽 약 130㎞ 부근 해상에서 시속 25㎞의 속도로 북북서진하고 있다. 중심기압 960hPa, 중심최대풍속은 39m/s, 강도는 '강'을 유지하고 있다.

'찬투'는 오는 16일까지 상하이 부근에 머물러 있다가 17일 오전 제주 서부해상을 거쳐 오후 3시쯤 부산 남서쪽 약 110㎞ 부근 해상까지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찬투'가 가까워지면서 제주지역은 태풍의 비 구름대 영향을 받아 비가 시작되고 13일 오후 2시를 기해 제주도 먼바다에 태풍경보, 오후 4시부터는 서해남부 먼바다에 태풍주의보가 내려졌다. 이날 오후 6시 이후로는 제주도 육상 전역에 호우·강풍주의보가 발효됐다.

이날 오후 4시 30분 기준 지점별 강수량은 제주 6.9㎜, 서귀포 32㎜, 성산 13.8㎜, 고산 6.8㎜, 태풍센터 34㎜, 강정 33㎜, 애월 29, 남원 28㎜, 한라산 진달래밭 79㎜, 삼각봉 66㎜, 윗세오름 56㎜ 등이다.

이와 함께 14일부터는 시간당 50~7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등 15일까지 최대 500㎜의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찬투'가 통과하는 16~17일에도 태풍 영향으로 강한 비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상 강수량은 15일까지 100~300㎜, 많은 곳은 500㎜ 이상이다.

이처럼 태풍이 다가오면서 제주자치도도 태풍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비 태세 점검에 들어갔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재해취약시설과 인명피해 우려지역 예찰활동 강화, 복개천과 저지대 주차차량 이동, 선별진료소 등 시설물 안전조치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도 이날부터 본격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제주기상청은 "태풍 '찬투'로 인해 강한 바람과 매우 높은 물결로 항공기와 여객선 운항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민성기자

2학기 4·3평화 인권교육 61개교서 진행

도교육청, 명예교사 위촉

코로나19로 올해 1학기 시행되지 못했던 4·3평화·인권교육 명예교사 수업이 이뤄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수업을 희망하는 도내 61개교를 대상으로 2학기 총 188시간의 명예 교사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46명의 명예교사를 위촉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동지역 일부 학교에서는 비대면 수업이 이뤄지고 있다. 명예 교사들은 직접 ZOOM을 활용해 학생들을 만나며 생생한 4·3 이야기를 들려주고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올해 경험을 토대로 내년부터는 상황에 따라 비대면으로 전환, 평화·인권교육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2015년부터 '4·3평화·인권교육 명예 교사제'를 운영하고 있다. 4·3을 직접 체험한 유족을 중심으로 매년 명예 교사를 위촉해 학교 현장에서 4·3의 역사적 사실과 평화·화해·상생의 교훈 등을 학생들에게 전하고 있다. 오은지기자

유·초·중 교직원 93% 백신 2차 접종

모든 고등학교 전체 등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유·초·중학교 교직원과 어린이집 등 교육 및 보육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실시한 결과 지난 12일 기준 93%의 접종률을 보였다고 13일 밝혔다.

유·초·중 교직원 대상 2차 접종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계획에 따라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실시됐다.

도교육청은 자가격리로 인해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교직원들은 해제 후 순차적으로 접종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접종에 참여하지 못한 교직원들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지역은 고3학생과 교직원들의 백신 2차 접종이 완료되면서 이날부터 도내 30개 모든 고등학교의 전체 등교를 포함한 새로운 학사운영 방안이 적용되고 있다.

600명 미만 초·중·고 및 특수학교는 학교자율 결정으로 전체 등교수업이, 600명 이상 중학교는 2/3등교 수업이 이뤄지고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600명~1000명 미만 4~6학년은 밀집도 2/3, 1000명 이상 4~6학년은 밀집도 1/3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오은지기자

'탐나는전' 부정 유통행위 전수 조사 착수

도, 조직적 불법 발견 시 수사 의뢰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부정 유통행위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인다고 13일 밝혔다.

제주도는 추석을 맞아 9월 탐나는전 10% 추가 적립 혜택 한도액이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되면서 부정유통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수 조사에 나서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도는 미등록 점포의 지역화폐 수취, 가맹점의 결제 거절 또는 웃돈 요구,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아닌 점포를 위해 환전 대행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도는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부당이득 환수와 함께 가맹점 취소 등의 조치를 내리는 한편 조직적 위법행위에 대해선 수사의뢰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최명동 제주도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감안해 9월 할인한도를 100만원으로 상향했다"며 "이를 악용해 지역화폐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불법행위는 반드시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LPG 가격 담합 의혹 철저히 조사하라"

제주주민자치연대 13일 성명

제주도내 LPG(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들의 가격 담합 의혹이 제기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서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이 '가격담합 의혹 철저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13일 성명을 내고 "LPG 충전사업자들이 서로 짜고 가격을 인상했다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최근 KBS제주의 보도에 따르면 도내 LPG 충전사업자 4개 업체가 지난해 11~12월 사이에 LPG 판매점에 공급하는 충전단가를 ㎏당 90~130원 인상했다"며 "통상 10~20원 인상하던 기존 관행을 깨고 판매점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높은 공급단가를 책정해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직 충전사업자 임원 내부 고발까지 나온 터라 가격 담합 의혹은 더 커지고 있다"며 "지난해 11월 도내 LPG 충전사업자 3개 업체가 투자약정서를 체결해 '제주산업에너지'라는 신규 충전사업 법인을 설립하고 영업 주요 부문을 공동 수행, 관리하려고 한 구체적 정황까지도 나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위법행위가 드러났다면 엄중 처벌해야 한다"며 "제주도도 행정력을 동원해 LPG 시장 전반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민성기자

추석 전 비상품감귤 유통행위 강력 단속

도, 단속반 편성 수시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 명절 및 올해산 노지감귤 본격 출하를 앞두고,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는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시장 위축으로 소비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다른 경쟁 과일의 경우 전년에 비해 생산량 증가와 함께 품질도 양호한 편이다.

반면 올해산 노지감귤은 대과 비율(L과 이상 46%, 최근 3년 평균 31.6%)이 많은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비상품 감귤의 철저한 격리가 어느 해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비상품 감귤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89명으로 구성된 13개 단속반을 구성하고, 단속 상황실도 운영한다.

단속반은 추석 연휴를 앞둬 18일까지 감귤 수확 현장, 상습 위반 선과장, 재래시장, 온라인 쇼핑몰, 감귤 직매장 등을 중심으로 불법 유통행위를 중점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덜 익은 감귤 수확·유통 ▷강제 착색 ▷풋귤 유통(9월 16일 이후) ▷비상품 감귤의 상품 둔갑·유통 등이다.

특히 온라인에서 감귤 유통량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온라인 감귤판매 모니터링 전담반 운영과 함께 품질관리 및 역추적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비상품 감귤 유통 농가, 단체, 선과장 등에 대해서는 감귤 조례에 따라 과태료(최대 1000만원) 부과와 함께 3년간 행·재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2회 이상 적발된 선과장은 품질검사원에서 해촉하고, 재위촉을 금지해 사실상 선과장 운영이 불가능하도록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는 제주 감귤 이미지 훼손과 함께 감귤산업 전반에 피해를 주게 된다"면서 "완숙과 위주의 선별 수확과 부패과 방지 등 고품질 감귤 유통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제15회

제주특별자치도민 발명아이디어 경진대회

응모기간 ~2021년 9월 24일 (금)

응모대상
제주특별자치도민 누구나
일반부문, 기업부문, 학생부문
※ 접수일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개인(기업)

응모범위
- 공고일 현재 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되지 않은 발명아이디어에 한함 (단, 본인 명의로 출원 중인 경우는 가능)
- 타 대회에 참가하여 수상한 내용과 동일한 경우는 제외
- 1인당 신청건수는 제한없음, 공동발명의 경우 대표자를 정하여 신청
- 응모시 발명아이디어의 요지를 설명하는 설명서 작성

응모방법
우편 및 팩스, 온라인(e-mail)접수
→ 우편 : (6320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17, 1003호 제주지식재산센터
→ 팩스 : 064-758-2169 → 이메일 : rotc2522@hanmail.net
- 신청양식 : 제주상공회의소, 제주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기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과제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함
- 문의처 : 제주지식재산센터 김석훈 연구원(070-4566-9107)

시상규모

	일반부문	기업부문	학생부문
대 상	특허청장상 (1인)	특허청장상 (1인)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상 (1인)
금 상	한국발명진흥 회장상 (1인)	한국발명진흥 회장상 (1인)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상 (1인)
은 상	제주상공회의소 회장상 (1인)	제주상공회의소 회장상 (1인)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상 (2인)
동 상	제주상공회의소 회장상 (1인)	제주상공회의소 회장상 (1인)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상 (3인)
입 상	제주상공회의소 회장상 (3인)	제주상공회의소 회장상 (3인)	제주상공회의소 회장상 (5인)
특별상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상		

※ 수상자 혜택
- 부상 : 일반부문·기업부문 최고 100만원, 학생부문 최고 50만원
- 국내 지식재산 출원 비용 우선 지원

주최 특허청 제주특별자치도 주관 제주상공회의소 RIPC 제주지식재산센터 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한국발명진흥회